

# 새 외국인투수와 호흡 한승택 “로니 파워풀, 놀린 안정감”

## KIA 함평 스프링캠프를 가다

KIA 타이거즈는 올 시즌 외국인 선수 ‘3인방’을 전월 새 얼굴로 구성했다.

특히 지난해 외국인 투수들의 부상·부진으로 힘든 시즌을 보냈던 만큼 마운드에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이 쏠린다.

올 시즌 새 외국인 투수들과 호흡을 맞추게 된 포수 한승택은 “다른 매력에 장점이야”고 두 투수를 이야기했다.

한승택은 지난 3일 로니 윌리엄스, 6일에는 선 놀린과 불펜에서 호흡을 맞췄다.

한승택은 “두 선수 공을 한 번씩 받았다. 캠프 초반이라서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괜찮았다”며 “로니는 하프피칭이었기 때문에 전력은 아니었지만 파워풀하게 들어가는 스타일이다. 폼도 지저분하고 투심, 포심이 사나운 느낌이다. 스피드가 나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까다로운 폼과 파워로 승부하는 로니와 다르게 놀린은 ‘안정감’이 장점이다.

한승택은 “두 선수 스타일이 다르다. 좌완인 놀린은 일본에서 뛰어도 좋다고 커멘트가 좋았다”며 “예리한 맛이 있다. 변화구도 좋고 예리하게 들어가는 스타일이다. 첫날이라 100% 보여준 것 같지는 않은데 날카로운 맛이 있고 괜찮았다”고 이야기했다.

국내 투수들의 움직임도 좋다. 올 시즌 양현종의 복귀와 함께 지난 시즌 경험을 더한 신에 투수들이 많아지면서 마운드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최지민, 강병우, 김찬민 등 3명의 루키도 패기를 내세워 어릴 무대를 갖는 등 KIA 마운드 분위기는 뜨겁다. 직접 공을 받아본 한승택도 마운드의 뜨거운 분위기를 느낀다.

한승택은 “생각보다 투수들 몸이 빨리 올라온 느낌이다. 아직 피칭을 세 번밖에 하지 않았지만 몸상태가 좋고 공에 힘이 있다”며 “서재우 코치님이 뒤에서 하나씩 하나씩 세세하게 잡아주고 계시는데, 바로 그 결과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투수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마운드 상승세에 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포지션의 한승택, 반대로 한승택도 투수들의 선택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한승택은 “투수들이 원하는 포수’는 정말 좋은 장전이다. 그런 포수가 되기 위해서 준비 많이 하고 있다. 또 투수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정말 안 좋을 때는 안 좋다고 이야기해주는 데 최대한 투수들 자신감을 키워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현종이 형, (임)기영이 형, 현석이 이런 애들은 지금까지 경험이 많은데 대부분 투수가 아니다. 자신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 순간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대화도 많이 하고 장난도 치

로니, 투심·포심 사납고 스피드 좋아 놀린, 변화구 좋고 예리한 맛 있어 국내투수들 몸 빨리 올라온 느낌 타격 기술적인 부분 열심히 준비

면서 편하게 해주려고 한다”며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투수들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소통’을 말하는 한승택은 벤치의 선택을 받기 위해 ‘타격’을 고민하고 있다.

한승택은 “지금 몸상태는 정말 좋다. 겨울에 개인 운동과 필라테스를 하는 등 트레이닝 쪽에서 열심히 했다. 움직임도 좋고, 발이 느리기는 하지만 땀 때 가벼운 느낌도 있다. 부상 없이 캠프를 잘 치를 수 있을 것 같다”며 “수비는 기본이다. 수비는 100%로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 수치적으로도 괜찮았고 수비 준비는 잘 되고 있다. 자신감은 많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 “수비는 당연한 것이고 더 발전하려면 공격에서도 보탬이 돼야 한다. 겨울에 타격을 많이 준비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게 많았던 만큼 코치님들이 많이 봐주시고 신경 써 주신다”며 “준비 잘 한 만큼 타격 부분에서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포수들이 투수들과 호흡을 맞추며 2022시즌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은 불펜에서 공을 기다리는 한승택(왼쪽부터), 타자 역할을 해주는 김민식 그리고 신범수.

## ‘호랑이 킬러’ 명성 날렸던 이적생 고종욱 “KIA에서 유니폼 벗는다는 각오로 뛰겠다”

‘호랑이 킬러’로 명성을 날렸던 외야수 고종욱이 “KIA에서 유니폼을 벗겠다”는 각오로 뛰고 있다.

지난해 SSG에서 방출의 아픔을 겪었던 고종욱은 올 시즌 KIA에서 새로 시작한다. 지난 겨울 마무리캠프에서 테스트를 받았던 고종욱은 ‘합격’ 판정을 받으면서 이번 스프링캠프에서 새 유니폼을 입었다.

고종욱은 “사전에 방출 이야기를 들으면 준비라도 했을 텐데 모르면 상태에서 들어서 많이 충격을 받았다”며 “야구를 더 이어갈 수 있을거라는 생각도 많이 했다. ‘내가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팀에 도움이 안 됐으니까, 방출된 것이니까 ‘야구를 이어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방출 당시를 이야기했다.

고민하던 그에게 KIA가 손을 내밀었고, 고종욱도 KIA를 선택했다.

고종욱은 “KIA에서 연락을 해주셨다. 선수 생활

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다. 여기에서 유니폼을 벗는다는 각오로 하겠다”고 말했다.

KIA를 선택했던 때와 다르게 외야 상황이 많이 바뀌기는 했다. FA 대어 나성범이 외야에 입성했고, 외국인 타자도 가세했다.

“최원준이 입대했기 때문에 잘 하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다”고 KIA를 선택한 이유를 언급한 고종욱은 “지금 상황은 다르지만 다른 팀도 경쟁은 똑같다. 경쟁에서 지면 유니폼 벗어야 되니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캠프에 임하는 마음을 밝혔다.

고종욱은 빠른 발을 앞세운 플라이로 KIA를 괴롭히던 ‘천적’이었다. 유난히 KIA에 강했던 고종욱은 좋았던 시절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고종욱은 “KIA랑 하면 잘 맞았다. 통산 성적도 좋았다”며 “좋았을 때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그



KIA 외야수 고종욱(오른쪽에서 두 번째)이나성범(맨 오른쪽)과 주루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때보다 많이 써서 체중 신경 쓰고 있다. 팀 상황상 많이 뛰어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준비 잘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루는 물론 방향이, 수비도 중요하다. 시합을

많이 뛰어야 보여줄 수 있다. 경쟁에서 안 밀리게 준비 잘하고, 시합을 뛰면 예전 같았을 때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돌아온 손흥민 내일 시즌 10호골 도전

## 사우샘프턴과 홈경기

부상을 털고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른 손흥민(토트넘)이 시즌 10호 골에 도전한다.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은 10일 오전 4시 45분 사우샘프턴과 2021-2022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24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토트넘은 지난달 24일 첼시와 EPL 23라운드에서 0-2로 패해 안토니오 콘테 감독 부임 후 리그 첫 패배를 당했다.

‘콘테 체제’ 정규리그 9경기 무패(6승 3무)를 마감한 토트넘은 사우샘프턴을 상대로 반등하고자 한다.

승리를 노리는 토트넘은 부상으로 이탈했던 손흥민의 복귀가 더욱이 반갑다.

손흥민은 지난달 6일 첼시와의 잉글랜드 카라바오컵(리그컵) 4강 1차전을 치른 뒤 다리 근육 통증을 호소해 전열에서 이탈했다가 이달 6일 브라이트 앤드 호브 엘비언과 2021-2022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4라운드에서 한 달 만에 복귀전을 치렀다.

돌아온 손흥민은 공격 포인트는 올리지 못했지만, 부상을 완벽하게 털어낸 듯 69분간 ‘만점 활약’을 펼치며 3-1 승리를 이끌었다.

그는 적극적인 전방 압박으로 공을 가로채 해리 케인의 선제골 발판을 마련했고, 팀이 2-1로 앞선 후반에는 브라이언 수비수 두 명 사이를 가로지르는 ‘폭풍 질주’를 선보였다.

스프린트 후 슈팅까지는 연결하지 못했으나, 케인이 문전으로 쇄도해 세기골로 연결했다.

부상으로 한 달간 자리를 비웠음에도 경기력을 잃지 않은 건 긍정적인데, 단적인 케인과의 호흡도 점차 살아나는 모양새다.

손흥민은 올 시즌 EPL에서 8골 3도움을 작성하고 있다.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에서의 1골 1도움을 더하면 올 시즌 공식전에서 9골 4도움을 올렸다. 사우샘프턴을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하면 6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게 된다.

손흥민은 그간 사우샘프턴을 상대로 강세를 보였다. 정규리그, FA컵을 포함해 14차례 맞대결에서 11골을 넣었고, 2020-2021시즌 사우샘프턴과 정규리그 2라운드에선 무려 4골을 폭발해 자신의 EPL 첫 해트트릭을 작성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연립뉴스

## ‘올림픽 부진 등 논란’ 정지택 KBO 총재 사임

정지택(71) KBO 총재가 사임했다.

정 총재는 8일 퇴임사를 발표하고 사임 뜻을 전했다. 그는 퇴임사에서 “지난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일부 선수들의 이탈과 올림픽에서의 저조한 실적으로 많은 야구팬들의 실망과 공분을 초래했다”며 “지난해 나타난 문제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관중수와 팬들의 관심도가 감소하고, 선수들의 기량과 경기력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많은 야구팬들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철저한 반성과 이에 걸맞은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신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듯이, 프로야구의 개혁을 주도할 KBO 총재도 새로운 인물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총재직에서 물러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BO 사무국은 규약에 따라 새 총재

를 선출한다. KBO 규약 14조에 따르면 총재가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권위되거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새 총재 선임에 앞서 류대환 사무총장이 총재의 직무를 대행한다.

한편 두산 베이스 구단주 대행 출신인 정 총재는 2021년 1월, 3년 임기의 KBO 총재 자리에 올랐다. 그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정규리그가 조기 중단되는 과정에서 특정 구단의 편을 들어줬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야구팬들의 중도 퇴진 요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여러 논란에도 자리를 지키던 정 총재는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돌연 퇴임사를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야구팬들의 공분을 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해적: 도깨비 깃발
- 2관 해적: 도깨비 깃발, 생2계더
- 3관 킹메이커
- 4관 나일 강의 죽음
- 5관 해적: 도깨비 깃발, 355
- 6관 나일 강의 죽음
- 9관 킹메이커
- 7관 씨네케틀 해적: 도깨비 깃발, 특송, 경관의 피
- 8관 씨네케틀 킹메이커,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맨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커스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  
일시 : 2022.03.03.(목)-04.(금)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61회 정기연주회  
**타임머신**  
일시 : 2022.02.18.(금)-19.(토)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24-5086